新羅 佛像과 天龍山 石窟의 佛像에 나타난 法衣 着衣樣式 比較

The Robe Styles of the Statues of Buddha of Shilla and Cave of Mt.Tien-Lung

이 순 덕 · 박 숙 현*
동주여자전문대학 의상과 ·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Lee, Soon Deuk · Park, Sook Hyun*
Dept. of Clothing Design, Dong-Ju Woman's College
Dept. of Clothing Design, Kyungsung Univ.*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out the differences in wearing robe styles of Buddhist Statues between Shilla and Tien-lung Mountain.

(1) Shilla Buddhist Statues are wearing Pyun-Sam that is similar to Jeogori(the traditional jacket of Korea).

(2) Bok-Gyen-Uy of Tien-lung Buddhist Statues are roundish shape, and that of Shilla Buddhist Statues are oblique line.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se shapes are very concerned with the wearing style of each nation.

(3) We can find another difference in the chest sash. Chest sach of Tien-lung Buddhist Statues is more functional, but that of Shilla Buddhist Statues is more decorative.

(4) Wearing Kasa, Young-Ja(i,e.string of kasa) is used in Shilla Buddhist Statues, but not in Tien-lung Buddhist Statues. This the most different thing between Shilla Buddhist Statues and Tien-lung Buddhist Statues.

Ⅰ. 머리말

불상이 출현하게 된 것은 석가모니가 涅般한지 약 오백년 후의 일이다. 불상은 그 소재적 특성상 가장 오래 남아 있는 자료이며, 부처가 입은 法衣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法衣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불상은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을 거쳐 들어왔으며, 특히 신라와 唐사이에는 활발한 문화교류가 있었다. 統一新羅期에는 求法僧, 留學生들의 唐 유학이 늘어나고, 인도를 직접 여행한 승려도 생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慧超(704-780), 元表(743-756入唐), 崔致遠(885歸唐)등을 들 수 있다.

천룡산 석굴에는 唐代를 대표하는 많은 불상들이 조성되어 있다. 한편 경주 남산에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말에 조성된 불상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이 불상들은 신라시대의 불상을 대표하는 귀중한 유물이다. 신라불상과 천룡산 불상의 조성연대는 비슷하지만 불상에 표현된 法衣의 着衣樣式은 다르다. 외래종교인

불교는 전래과정에서 지역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환경순응적인 변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불교의 전래는 佛敎敎理의 일방적인 수용은 아니었으며, 그 나라 고유의 사상, 풍습, 전통 등과 습합하면서 토착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불상양식이나 거기에 나타난 착의양식도 민족 고유의 문화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불상 조성 연대가 비슷한 중국의 천룡산 석굴의 불상과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불상에 나타난 법의 착의 양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법의의 착의 양식을 비교해 보는 것은 불교의 전래에 대한 이해라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복식문화의 전래에 대한 이해라는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의 불상에 대한 연구는 조형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불상에 표현된 법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7세기초에서 9세기경에 조성된 신라의 불상에 나타나 있는 법의의 착의양식과 6세기에서 8세기에 조성된 중국 천룡산 석굴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법의의 착의양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신라불상과 천룡산 석불 가운데 着衣形態가 대체로 분명한 42 佛像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신라불상은 경주남산을 답사하여 불상을 직접 관찰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관찰하였으며, 중국의 불상은 圖繪資料에 수록된 불상의 圖錄을 이용하였다.

Ⅱ.法衣의 種類 및 着衣法

1. 法衣의 種類

法衣는 불교의 복식이다. 법의에는 다음과 같은 大, 中, 小의 三衣(trinicivarvni)가 있다. 즉 僧伽梨(Samghati), 鬱多羅(Uttarasangha), 安陀會(Antarvasa) 이다. 이것은 입는 용도에 따른 구별인 동시에 條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다. 제정된 동기는 불교가 하나의 새로운 敎壇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차츰 그 信奉者와 追從者가 늘어나 修行集團을 형성하자 그들을 俗人 또는 他宗敎 敎派들[1]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三衣가 比丘의 服飾으로써 제정된 것은 釋迦가 1250명의 비구를 데리고 비사리(毗舍離)에서 蒐婆羅婆提로부터 供養을 받고 나오다 露地에 앉아 있을 때, 初夜에는 一衣인 五條衣(安陀會 : Antravasa)만 입었다가 中夜에 조금 寒氣를 느껴 二衣인 七條衣(鬱多羅僧 : Uttarasangha)를 입고, 後夜가 되니 다시 더 寒氣를 느껴 三衣인 九條衣(僧伽梨 : Samghathi)를 입었는데, 그 이후로 釋迦는 三衣만 가지면 추위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구를 모아 놓고 三衣 이상은 가지지 말라고 制限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2]

律藏에 의하면 불타가 비구승단의 법의를 田文相의 조각 옷으로 지어 입도록 하였다. 그것은 법의가 타종교의 복식과 구별되게 하고, 도적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방의 정연한 水田모양을 본따서 그것을 짓는 법을 고안하도록 아난에게 명함으로부터라고 한다.[3] 법의의 意義는 「行事抄資持記」에서 보면 '첫째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함이요, 둘째는 恥部를 가려서 羞恥心을 없애기 위함이요, 세째는 마을에 나가 乞食하기 위함이요, 넷째는 慈善을 행하기 위함이요, 다섯째는 威儀가 淸正하기 위함' 이라고 하여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4]

법의는 중국에 전래된 이후 불교를 닦는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道服, 世俗을 떠난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出世服, 불법을 아는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法衣, 六塵에서 멀리 떠난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이진복(離塵服), 煩惱를 없애고 德을 쌓게 한다는 뜻에서 消瘦服, 染着이 蓮花와 같다는 뜻에서 蓮花服, 五正色을 피한 色으로 만든다고 해서 間色服, 慈悲를 행하는 사람의 옷이라는 뜻에서 慈悲服 등으로 불려지게 되었다.[5]

인도에서 이러한 사리형태의 三衣를 법의로 정했으나, 三衣 외에 下衣도 또한 법의로 포함되게 하였다. 이 下衣類가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차츰 寒帶地方인 中國等地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그 나라의 風土에 맞는 服飾이 考案되어 변형된 형태로 입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법의는 인도에서는 평상복이었는데, 여기에 종교적인 상징 또는 의식을 위한 하나의 복식으로 바뀌면서 승려가 법의 안에 입고 있는 그 나라의 固有服裝까지도 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三衣 외에 내의 류를 포함

하여 승려의 몸에 걸치는 것을 모두 法衣라고 불리게 되었다.

2. 法衣의 着衣法

인도에서 착용되어지기 시작한 법의로는 外衣인 三衣와 內衣인 僧祇支,覆肩衣,尼洹僧이 있는데 이들의 착의법에 대해 살펴본다.

法衣의 착의 순서는 上內衣로 僧祇支와 下內衣인 尼洹僧을 입고 그 위에 外衣인 僧伽梨를 입는다.

外衣의 着衣法에는 크게 通肩과 偏袒右肩의 두 가지 方式이 있다. 通肩은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착의법이다.이러한 착의법은 한냉한 간다라 지방의 着衣法이다. 佛敎가 한냉한 西北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그 기후 풍토에 순응하여 通肩 着衣法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며,이런 흔적은 律藏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偏袒右肩은 법의를 左肩에 걸치고 右肩을 노출시키는 착의법이다. 이러한 着衣法은 熱帶性氣候 地域인 中印度에서 주로 착용하였다. 그 이유는 간다라의 初期 佛像樣式에서 한결같이 通肩着衣法만을 확인할 수 있고,中印度 마튜라 佛像의 初期樣式에서는 偏袒右肩 着衣法만을 확인 할 수 있으며,兩大樣式이 상호 영향을 미쳐가는 단계에서 通肩 着衣法과 偏袒右肩 着衣法이 交叉擴散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6]

법의의 크기를 정하는 데는 첫째, 실용적인 의복으로서의 크기 둘째, 단정하게 입기위해서의 크기 셋째,小欲知足의 세 가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7] 「四分律」에 의하면 三衣 中 安陀會는 長이 4肘, 廣이 2肘이며(長7尺2寸, 廣4尺5寸), 鬱多羅僧과 僧伽梨는 長이 3肘, 廣이 3肘(長9尺, 廣5尺4寸)라고 하였다.[8] 長短의 단위로 쓰는 肘는 범어 hasta의 譯語인데 인도 문화권에서 쓰이던 尺度法의 한 단위로 두 뼘에 해당하는 길이이다.[9]

裙裳안에 입는 上內衣는 梵語로 samkaksika이며, 僧脚崎 또는 僧祇支 등으로 漢譯되는 것이다. 이 上內衣는 印度에서 부터 착용되었던 것인데 착용법은 왼쪽 어깨를 덮고 오른쪽 겨드랑이로 내려 입는 偏袒右肩의 착의법이었다. 추운지방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옷은 오른쪽 어깨가 노출되어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비구니일 경우는 유방을 가릴 필요가 있게 되어 나온 것이 오른쪽 어깨를 덮는 覆肩衣이다.

法服格正에 「祇支는 원래 僧 尼 함께 허락하시고,覆肩은 尼에게만 허용하시다.단지 僧 가운데 阿難 한 사람에게 覆肩을 허용하신 일이 있다」라 하고 있다.그리고 覆肩衣의 制定은 釋種法에서 출가한 貴族女인 比丘尼가 어깨를 드러내고 行乞하고 世人의 注目을 받은 일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10]

이와 같이 어느 쪽이든 偏袒右肩으로 하여 노출된 어깨나 가슴 등을 가리는 目的으로 使用된 속옷임은 분명한 것 같다.比丘의 三衣는 基本的인 옷차림이었으나 점차로 比丘尼와 같이 三衣 외에 이와 같은 속옷도 사용하게 되었다.그와 함께 下半身의 속옷도 있었다.

小乘佛敎를 믿는 남방불교 국은 맨살에 裙裳를 걸치되 尼洹僧(Nivasana)을 입고 그 위에 大衣를 걸치도록 되어 있다.인도에서 下內衣로 사용되어진 裳類는 도티(Dhoti)라고 하여 貴賤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입는 기본 의복이다. 승려들의 도티에 해당하는 내의류는 장방포인 尼洹僧으로 허리에 둘러 감고 腰帶를 매었다. 그러나 이 尼洹僧은 외의에 덮이어 있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尼洹僧의 착의법은 腹部 앞 中央에 裙幅이 重疊되어 주름을 잡듯이 左右邊이 여며지게 하고 여기에 衣帶를 매지 않고 두 끝을 서로 여며 꺾어 끼우도록 한다. 그러므로 가끔 여민 곳이 풀어져 옷이 흘러 내려서 알몸을 노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11] 「四分律」에 의하면 비구가 띠를 매지 않고 속인의 집에 갔다가 尼洹僧이 풀어져 알몸을 드러내는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불타는 비구가 尼洹僧을 입을 때 반드시 의대를 매도록 규정했다. 이는 곧 비구의 의제의 규범이 되었던 불타 자신도 尼洹僧에 의대를 매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12]

衣帶는 불타의 衣服觀을 좇아서 비단이나 아름다운 색 또는 백색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다만 法衣와 같은 색으로만 만들며, 넓이는 二指, 길이는 허리를 세번 감는 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13]

이와 같은 규정으로 승려들에게 사치를 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후에 다양한 넓이와 길이가 나타남을 보아 규범 내에서 미적인 것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新羅 佛像의 法衣

1. 新羅 佛像의 歷史

新羅의 佛敎는 이차돈의 殉敎(法興王 14년:527)를 계기로 정식공인을 받게 되었다. 이 때부터 불교는 점차 신라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법흥왕 22년(535)부터 시작한 興輪寺의 創建을 계기로 확고한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신라의 불교는 王室佛敎이며 國家佛敎라 할 수 있는데, 이는 國家의 安慰와 發展을 비는 護國的인 性格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호국적인 성격 외에 신라 불교의 특징은 信仰의 中心地가 國都 慶州를 중심으로 귀족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이다. 신라 귀족들의 신앙심은 불교 寺刹의 擴張과 名勝地 寺刹 建立을 더욱 촉진시켜 이로 인해 國都 慶州와 근접해 있는 南山을 중심으로 寺刹과 佛像의 建立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南山은 거의 300년 동안 新羅의 建國과 統一, 佛敎信仰의 本據地로 일종의 聖域으로 여겨져 왔다.

三國遺事[14]의 내용으로 볼 때 남산은 新羅 始祖인 赫居世王의 궁실이 자리잡은 곳이며,진평왕과 문무왕 대에는 南山城을 쌓은 군사적 요충지로, 산신의 설화와 불교 사찰 건립의 본거지였다. 그러므로 남산이 신라 사회와 불교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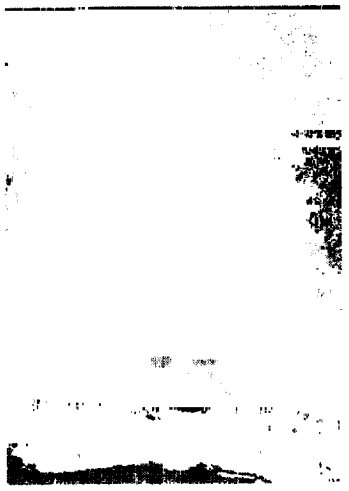
또한 이 곳은 특히 부처를 조각할 수 있는 自然岩石이 豊富하였다. 이러한 緣由로 南山은 신라의 불상을 대표할 만한 石佛들이 많이 조성되게 되었으며, 現在까지 모두 79石佛이 발견되고 있다.[15] 신라는 삼국 중 불교가 가장 늦게 전래되었으나 불상은 불교가 들어온 후 활발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 불상이 製作되기 시작한 것은 6世紀 中葉 興輪寺가 창건된 540年代이다. 현존하는 삼국의 佛像中에는 新羅 佛像이 가장 많으며, 統一新羅時代에 있어서는 이 시기의 불상이 韓國 佛像의 最盛期였다.

2. 法衣 種類 및 着衣法

현재 발견된 신라의 불상 가운데 본고에서는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如來像 21불상을 法衣의 種類 및 着衣樣式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 불상에 표현된 衣種은 僧伽梨와 上內衣로 僧祇支, 偏衫, 下衣로는 尼洹僧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佛傳圖에 나타난 佛像의 衣服은 僧伽梨와 尼洹僧만이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승기지를 속에 입고 승가리를 착용한 불상과 下衣인 尼洹僧위에 僧伽梨를 착용한 불상, 偏衫 위에 승가리를 착용한 불상 등을 볼 수 있다.

偏衫은 중국에서 입기 시작한 것으로, 상체를 가리는 옷이며, 僧祇支와 覆肩衣가 합해져 하나의 上內衣로 변한다. 이 편삼은 우리나라의 저고리와 흡사한 것이며 옷깃을 여민 모습까지 비슷하다. 이러한 형의 옷은 우리 나라 삼국시대 불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특징으로 인도나 중국의 불상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한국적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 예로는 국립 부여 박물관소장의 금동여래입상과 瑞山 磨崖佛,신라 불상으로는 三花嶺 彌勒佛像과 佛谷 石窟 如來坐像(圖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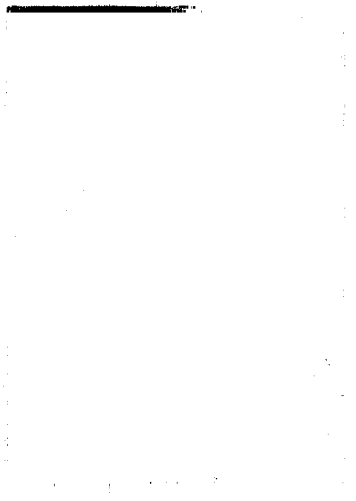


(圖 1) 佛谷石窟如來坐像(경주 남산)

外衣는 모두 僧伽梨를 착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上內衣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으로 비스듬히 내려입는 僧祇支를 착용하고 있다. 僧祇支를 볼 수 있는 佛像은 三花嶺 彌勒如來倚像, 彌勒谷 石佛坐像, 七佛庵 四面佛, 三陵谷 石佛坐像, 三陵谷 磨崖如來坐像, 茸長寺谷 石佛坐像, 潤乙谷 釋迦如來坐

像(圖2)이다.

승기지 위에는 끈으로 매듭을 지어 묶었는데, 매듭의 형태를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매듭의 형태는 신라인들의 복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 예로는 三花嶺 彌勒如來倚像, 七佛庵 四面佛, 三陵谷 石佛坐像, 三陵谷 磨崖如來坐像, 茸長寺谷 石佛坐像, 潤乙谷 釋迦如來坐像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三陵谷 石佛坐像에서 사용된 帶의 형태는 남방불교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매듭의 장식은 우리나라 고승 진영의 장삼 위에 묶은 끈의 매듭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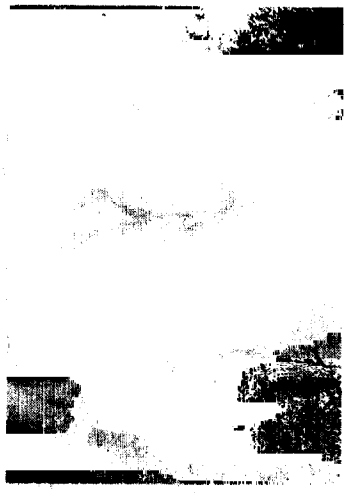


(圖 2)潤乙谷釋迦如來坐像(경주남산)

纓子를 사용하여 袈裟를 고정시키는 불상은 三陵谷 石佛 坐像(圖3) 과 茸長寺谷 石佛坐像이다. 불상에서 纓子를 사용한 예는 드문 일이다. 三陵谷 石佛 坐像에서는 윗부분은 매듭을 지어 묶어 고리를 왼쪽으로 내고 나머지 자락은 머리를 땋아 늘어뜨린 듯 매듭을 지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영자는 불상에서 뿐만 아니라 승려들도 영자를 사용하여 가사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자를 매듭으로 지어 묶음으로써 機能的인 面보다 裝飾的인 面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신라불교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新羅佛像에 나타난 법의의 종류는 大衣인 僧伽梨, 가슴을 가리도록 대의 속에 걸쳐진 僧祇支, 下裙인 尼洹僧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정된 법의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불상에 표현된 법의의 착의법은 다양하다.

着衣法은 通肩(圖2)과 偏袒右肩(圖4)의 크게 두 가지이며, 이 두 着衣法을 기본으로 하여 僧伽梨 着衣法, 僧祇支의 着衣 有無, 그 위에 둘러진 띠의 有無, 왼쪽 어깨 위에 표현된 袈裟의 纓子 有無 등을 기준으로 新羅 石佛에 나타난 法衣의 着衣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圖 3) 三稜谷釋迦坐像(경주남산)

通肩(A)形(圖1 참조)은 가장 基本形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큰 장방형 布로 하체를 감싼 尼洹僧 위에 僧伽梨를 몸 위로 감싸 올려 앞을 둥근 U형으로 나타낸 형태이다. 佛谷 石窟如來坐像, 拜里 石佛立像, 金光寺址 石造如來立像, 塔谷 石造如來坐像, 潤乙谷 南面 如來坐像,三陵谷 藥師如來坐像 등이 이 형식에 속한다.

通肩(B)形은 승기지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입혀진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위에 승가리가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와 가슴부분의 옷깃 속에 살짝 접혀져 들어간 형식을 취하고 있다. 彌勒谷 石佛坐像과 茸長寺谷 磨崖釋迦如來坐像이 이 형식에 속한다.

通肩(c)形(圖2 참조)은 佛像의 가슴을 많이 드러내도록 앞자락을 연속적인 U형으로 착용한 승가리 속에 왼쪽 가슴에서 우른쪽 겨드랑이 밑을 지나는 승기지를 대각선으로 보이도록 입는다. 그리고 그 위에 띠를 매어 띠의 매듭 부분이 보이도록 착용한 형태이다. 三花嶺 彌勒如來倚像, 七佛庵 四面佛, 三陵谷 磨崖如

來坐像, 潤乙谷 釋迦如來坐像 등이 이 형식에 속한다.

通肩(D)形(圖3 참조)은 僧伽梨가 왼쪽 어깨 위에서 纓子로 매듭지어져 고정되어 있고 승기지 위의 띠가 매듭으로 장식되어 있다. 三陵谷 石佛坐像과 茸長寺谷 石佛坐像이 여기에 속하는데, 왼쪽 어깨의 매듭 끈이 길게 結跏趺坐한 다리까지 늘어뜨려져 있다.

偏袒右肩形은 승가리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으로 비스듬히 내려와 감긴 형으로 塔谷 阿彌陀如來像, 三陵谷 如來坐像(圖 4), 潤乙谷 藥師如來像 이 있으며, 왼쪽 어깨 부분의 법의의 자락이 反轉되어 있는 형으로는 七佛庵 本尊佛, 三陵谷 釋迦如來像, 三陵谷 阿彌陀如來像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신라 불상을 통하여 살펴본 법의를 袈裟,上內衣,下內衣 및 착의법을 요약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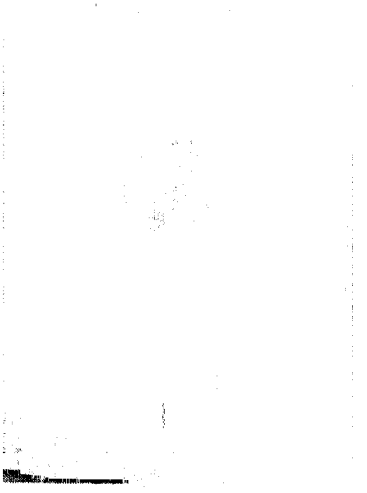
<표 1> 新羅佛像에 나타난 法衣

服飾 / 佛像	袈裟	上內衣	下內衣	帶	着衣法
金銅如來立像(7세기)	僧伽梨	僧祇支	尼師壇	매듭	通肩 C
三花嶺彌勒如來倚像(7세기)		偏衫		--	通肩 C
佛谷石窟如來坐像(7세기)		偏衫		--	通肩 A
拜里石佛立像(7세기)		---		--	通肩 A
金銅藥師如來立像(8세기)		僧祇支		매듭	通肩 C
七佛庵四面佛(8세기)		僧祇支		매듭	通肩 C
三陵谷磨崖如來坐像(8세기)		僧祇支		매듭	通肩 C
三陵谷石佛坐像(8세기)		僧祇支		매듭	通肩 D
七佛庵本尊佛(8세기)		---		--	偏袒右肩
金光寺址石造如來立像(8세기)		---		--	通肩 A
彌勒谷石佛坐像(8세기)		僧祇支		--	通肩 B
潤乙谷南面如來坐像(9세기)		---		--	通肩 A
塔谷石造如來立像(9세기)		---		--	通肩 A
三陵谷藥師如來坐像(9세기)		---		--	通肩 A
潤乙谷釋迦如來坐像(9세기)		僧祇支		매듭	通肩 C
三陵谷阿彌陀如來像(9세기)		---		--	偏袒右肩
茸長寺谷石佛坐像(9세기)		僧祇支		매듭	通肩 D
三陵谷釋迦如來坐像(9세기)		---		--	偏袒右肩
塔谷阿彌陀如來像(9세기)		---		--	偏袒右肩
三陵谷如來坐像(9세기)		---		--	偏袒右肩
潤乙谷藥師如來坐像(9세기)		---		--	偏袒右肩

Ⅳ 天龍山 石窟의 法衣

1. 天龍山 石窟의 歷史

천룡산 석굴은 山西省의 省都 太原에서 30km 지점에 있는 천룡산의 동남기슭 백색 沙岩 절벽에 뚫려 있다.석굴이 造營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北齊를 창건한 文宣帝의 父王이 이 절을 여름 피서 행궁으로 사용하던 시절로 생각되는 東魏 때(540년경)에 造營되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16]



(圖 4) 三稜谷如來坐像(경주남산)

천룡산 석굴은 천룡산의 두 봉우리인 東 <표 1> 新羅佛像에 나타난 法衣 峰과 西峰에 걸쳐 개착되어 있는데 동봉에는 1-8굴이 있고, 서봉에는 9-21굴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중심부에만 총 200여 불,보살상이 조성되었는데 東魏시대 부터 唐時代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만들어 온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황폐된 석굴을 우리의 선조였던 순장군 부부가 706년부터 개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唐代를 대표하는 많은 걸작의 불상들이 조성되어 唐佛像彫刻硏究에 가장 주목되고 있다.[17] 현재 석굴의 상황은 여러번의 도굴과 복원으로 변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동안 불교도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하겠다.

천룡산 석굴과 동시대의 유물이 所藏된 산서성 박물관은 태원 시내 중심 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 공자의 신위를 모신 文廟였던 건축이다. 이 박물관에는 산서성 일대에서 출토되었거나 전해 내려온 유물들을 집성, 수장하고 있어서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반

드시 보아두어야 할 곳이다. 이곳의 불상들은 천룡산 등 산서성의 각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중국 조각사에 거론되는 작품들도 있다.[18]

2. 法衣 種類 및 着衣法

천룡산 석굴과 산서성 박물관의 석불 가운데 본고에서는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如來像 21佛像을 중심으로 法衣의 着衣 樣式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불상에 표현된 衣種은 僧伽梨와 鬱多羅僧, 上內衣로 僧祇支, 下衣로는 尼洹僧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外衣로는 거의 僧伽梨를 착용했으며,東峯제3굴 후벽의 三尊像은 僧伽梨와 鬱多羅僧을 동시에 착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佛陀의 衣服을 말하는 경전에서 울다라승을 말할 때는 반드시 승가리와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19], 長阿含經[20]에는 '세존께서 승가리를 네번 접어 왼쪽으로 누워 발을 포개서 드러누우셨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佛說衆許摩訶帝經[21]에는 승가리는 거친 옷, 釋迦가 山中에서 입던 옷 등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한 벌의 옷을 입을 때는 승가리를 착용하고, 두 벌일 경우는 승가리, 울다라승을 착용하고 세벌을 입을 때는 승가리, 울다라승, 안타회를 차례로 착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大衣인 僧伽梨,上衣인 鬱多羅僧,內衣인 安陀會의 三衣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계율도 있다.[22] 이 三衣 가운데 外衣로 大衣만 주로 입었다는 설도 있으며[23], 上衣인 울다라승도 입고, 大衣인 僧伽梨와 上衣인 鬱多羅僧 둘다를 입는다는 설도 있다.[24] 그외 다른 佛像에는 大衣인 僧伽梨와 왼쪽어깨에서 오른쪽어깨로 내려 입은 僧祇支, 下裙인 尼洹僧을 착용하고 있다.

着衣法으로는 通肩과 偏袒右肩으로 나타나는데,통견형이 주를 이룬다. 이 두 着衣法을 기본으로 하여 앞의 신라에서와 마찬가지로 僧伽梨 着衣法, 僧祇支의 着衣 有無, 그 위에 들러진 띠의 有無, 왼쪽 어깨 위에 표현된 袈裟의 纓子의 有無 등을 기준으로 천룡산 석굴과 산서성박물관의 불상에 나타난 法衣의 着衣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通肩(A)形은 하체를 감싼 尼洹僧 위에 僧伽梨를 목 주위를 감싸면서 가슴위로 흘러내리는 주름이 연속적인 U형의 주름을 형성한다. 얇은 대의가 목 주위에서 몇 번 겹쳐지는 모습은 인도의 간다라와 마투라 양식이후 나타난 굽타시대의 상이나 그 양식을 반영하는 阿育王像계의 像에서는 이러한 착의 형식을 볼 수 있다. 제작연도 8세기로 추정하는 천룡산 석굴 동봉 제5굴불좌상이 이 형식에 속하며, 이와 같은 승가리의 착의 모습은 제작년도인 8세기 신라의 금광사지 석조여래입상에서도 볼 수 있다.

通肩(B)形은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온 법의의 단이 오른쪽 팔과 다리로 길게 늘어져 내려오고, 왼쪽 법의의 단은 등근 형으로 주름져 내려와 오른쪽 법의의 안으로 넣어 감겨져 있다.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을 지나는 僧祇支가 둥근 옷깃의 형태를 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불상은 천룡산 석굴 동봉 제8굴 방주 동면 불좌상,동봉 제 8굴 남면 불좌상,서봉 제18굴 왼쪽(향우)벽 본존 불좌상,서봉 제18굴 오른쪽(향좌)벽의 불좌상 서봉 제19굴 왼쪽 벽의 불의좌상,산서성 박물관 석불입상과 唐代 碑像2이다.

通肩(c)形은 승가리는 佛像의 가슴을 많이 드러내도록 앞자락을 U형으로 착용하고 있다. 승가리 속에 僧祇支는 둥근 옷깃의 형태를 하고 있고,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을 지나며, 그리고 그 위에 띠를 매고 나머지 자락은 길게 늘어뜨린 형태이다.

천룡산석굴 동봉 제2굴 오른쪽(향좌)벽의 본존(圖5),동봉 제3굴 후벽의 삼존상,동봉 제3굴 오른쪽(향좌)벽의 倚像,동봉 제8굴 오른쪽(향좌) 벽의 불좌상,제8굴 왼쪽(향우)벽의 감실내 본존상,서봉 9굴의 불의좌상(圖6),산서성박물관소장의 隋代석불입상,北齊-隋代 佛立像,北魏불입상이 이 형식에 속한다. 이렇게 법의가 도포처럼 걸쳐지면서 앞 가슴이 많이 노출되고 내의가 입혀진 것이 보이는 형태는 중국 불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봉 9굴의 불의좌상의 법의 착의 형태는 옷깃을 열어 젖히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신라의 불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며, 일반인의 복식 착의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일반인의 복식의 착의 형태를 보면 당초기에는 옷깃을 열어 젖혀 입기도 하고, 여며 입기도 하였으나 점차 여며 입게 되었다고 한다.[25] 신라불상에서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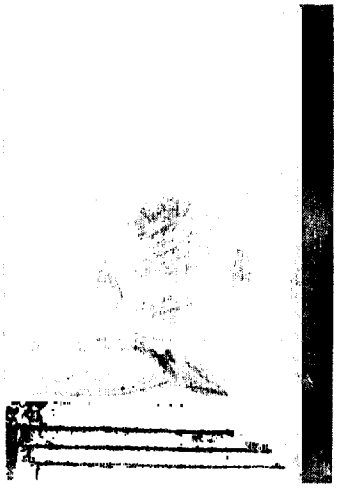
는 통견(D)형은 천룡산 석굴의 불상과 산서성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다.

偏袒右肩形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승가리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으로 착용한 형으로 천룡산석굴 동봉 제4굴 후벽 불좌상,동봉8굴 방주 북면 감실 내 본존상,서봉 제18굴후벽의 불좌상(圖7)이다.

(圖 5) 東峯 제2굴 본존(실크로드의 문화, 도판 62).

(圖 6) 西峯 제9굴 불의좌상(실크로드의 문화, 도판 94).

이와같이 불상에서 다양한 법의의 착의법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처음 인도에서 불상이 전래되었을 당시 중국문화의 전통적 시각에서 볼 때, 불상은 완전한 이질문화였지만, 끊임없는 접촉 속에서 중국문화와 점차적으로 융합되었다.[26] 불상에 나타난 法衣 역시 중국의 복식문화와 융합되어 중국적 특색을 띈 法衣로 발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圖 7) 西峯 제18굴 불좌상(실크로드의 문화, 도판 117).

이상의 중국천룡산 석굴의 불상을 통하여 살펴본 법의를 袈裟,上內衣,下內衣 및 着衣法을 요약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天龍山 石窟의 佛像에 나타난 法衣

服飾 / 佛像	袈裟	上內衣	下內衣	帶	着衣法
東峯제2窟如來佛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尼 裙 僧	有	通肩C
東峯제3窟本尊佛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有	通肩C
東峯제3窟菩薩佛坐像(6세기)	僧伽梨 鬱多羅僧	僧祇支		有	通肩C
東峯제4窟佛坐像(7세기)	僧伽梨	---		--	偏袒右肩
東峯제5窟佛坐像(8세기)	僧伽梨	---		--	通肩A
東峯제8窟東面佛坐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	通肩B
東峯제8窟南面佛坐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	通肩B
東峯제8窟向左佛坐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有	通肩C
東峯제8窟向右本尊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有	通肩C
東峯제8窟北面佛本尊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有	偏袒右肩
西峯제9窟佛倚坐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有	通肩C
西峯제18窟向右佛坐像(8세기)	僧伽梨	僧祇支		--	通肩B
西峯제18窟向左佛坐像(8세기)	僧伽梨	僧祇支		--	通肩B
西峯제18窟菩薩佛坐像(8세기)	僧伽梨	---		--	偏袒右肩
西峯제19窟向右佛倚坐像(7세기)	僧伽梨	僧祇支		--	通肩B
山西省石佛立像(6세기)	僧伽梨			--	通肩B
山西省隋代石佛立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有	通肩C
山西省北齊-隋代佛立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有	通肩C
山西省唐代佛像1(8세기)	僧伽梨	僧祇支		有	通肩C
山西省唐代佛像2(8세기)	僧伽梨	僧祇支		--	通肩B
山西省北魏佛像(6세기)	僧伽梨	僧祇支		有	通肩C

V.맺는말

法衣는 外衣인 僧伽梨,鬱多羅僧,安陀會의 三衣가 있고,內衣는 僧祇支,覆肩衣 와 尼洹僧이 있다. 신라불상에 표현된 衣種은 外衣인 僧伽梨, 上內衣인 僧祇支와 偏衫, 下衣인 尼洹僧이다. 천룡산 석굴의 불상에서는 僧伽梨와 鬱多羅僧,上內衣로 僧祇支,下衣로는 尼洹僧을 착용하고 있으며 偏衫은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法衣의 착용 모습은 僧祇支를 속에 입고 僧伽梨를 착용한 불상과 下衣인 尼洹僧위에 僧伽梨를 착용한 불상,편삼위에 숭가리를 착용한 불상 등을 볼 수 있으며,僧伽梨는 通肩法과 偏袒右肩法으로 착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신라 불상과 천룡산 석굴의 불상에 나타난 法衣의 着衣 樣式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신라의 삼화령 미륵불상과 불곡석굴 여래좌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저고리 형태와 비슷한 偏衫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은 삼국시대 불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중국 천룡산 석굴의 불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내려 입는 僧祇支의 형태를 보면, 천룡산 석굴의 경우에는 앞가슴에서 옷깃이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신라 불상의 경우는 주로 사선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서봉 9굴의 불의좌상의 법의 착의 형태는 옷깃을 열어 젖히고 있는데 비하여 신라의 불상에는 이러한 형태는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불상의 법의 착의형태는 각국의 당시 일반인의 복식의 착의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僧祇支위에 묶는 帶의 매듭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천룡산 석굴 불상에서의 요대는 법의를 고정시키는 기능적 의미가 강하나, 신라의 불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매듭을 지어 묶으면서 고리를 지어 만들고 있어 장식적 의미가 강하다. 이것은 신라인의 미의식이 불교 복식에 나타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신라의 삼룡곡 석불좌상과 이장사곡 석불좌상에서는 僧伽梨를 착용할 때 가사끈(纓子)을 사용하고 있으며,이것을 매듭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불상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한국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僧祇支 위에 묶은 帶의 표현과 袈裟의 纓子 매듭이 정교하게 매듭지어져 있는 이러한 특징은 불교의 수용과정에서 신라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가 습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僧伽梨 속에 나타난 偏衫의 여밈은 신라인의 저고리 여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袈裟의 纓子 매듭과 帶의 매듭은 우리 나라의 服飾에 이용된 매듭과 유사하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특색 있는 장식품인 매듭이 신라때 부터 전해 왔다는 사실을 불상을 통해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을 왕래한 留學僧, 使臣, 佛法을 구하기 위해 인도를 왕래한 僧侶들에 의하여 불상이 전래되었지만, 신라의 불상은 신라인의 종교관과 정서에 맞는 형식으로 발전됨에 따라 불상에 표현된 법의양식은 인도나 중국과는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古代 印度에는 96種의 外道들이 있었다.
2)新修大藏經,卷22,655-857.
3)四分律,卷40,<衣揵度>2.
4)任榮子(1990),韓國 宗敎服飾,亞細亞文化史,15.
5)진홍섭(1992),한국의 불상,일지사,80.
6)安明淑(1989),袈裟의 衍義에 관한 硏究,東國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51-53.
7)久馬慧忠(1967),袈裟の 硏究,大法輪閣版,291.
8)新修大藏經,卷22,321.
9)任榮子,앞의 책,19.
10)新修大藏經,卷22,187.
11)崔完秀(1989),이중착의법고,佛敎美術,동국대학교,48.
12)崔完秀(1989),간다라 佛衣攷,佛敎美術,동국대학교,84.
13)新修大藏經,卷22,855.
14)三國遺事,卷第一,紀異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15)윤경렬(1993),겨레의 땅 부처님 땅,불지사,358.

16)荊三林(1988),中國石窟彫刻藝術史,人民美術出版社,80-81.
17)문명대(1994),서역 실크로드 탐사기,한국언론자료간행회,50.
18)문명대(1994), 앞의 책,32-36.
19)新修大藏經,卷1,552.
20)新修大藏經,卷1,49.
21)新修大藏經,卷3,972
22)新修大藏經,卷23,195.
23)崔完秀(1989),간다라 佛衣攷,앞의 책,87.
24)Grisword,A.B.(1963), The the Study of the Buddha Dress in Chinese Sculpture, Artibus Asia,26(2),85-131.
25)林裁永(1984),圓領에 관한 연구,복식 8(3),227.
26)황유복,진경부(1995),한-중 불교문화 교류사,까치,37.